

투데이 칼럼

북한 금융해킹 세계 최강

**북**한은 사이버 능력을 활용해서 각각의 자산과 중요 기밀을 탈취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북한의 해킹 능력은 단연 최고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이메일 한 통이 어느 곳에 왔다. 하지만 이 첨부파일을 여는 순간 사용자 정보와 키보드에 입력한 내용이 뜬금없이 넘어가는 '키로킹' 악성코드로 감염된다. 분석 결과 범인은 북한의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김수키'로 추정됐다. 최근 대북 전문가, 정부출연 기관 관계자들에게 이런 악성코드 이메일이 집중 발송되고 있다. 북한 사이버 공격은 제도화돼서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다. 글자 모양을 1로 바꾼다든가, 아는 사람의 이메일이랑 비슷하게 느껴지도록 한다. 2004년 전 세계 사이버 공격 중 북한 소행으로 된 것은 1년 동안 단 5건이다. 하지만 최근 크게 늘어나 2021년에는 하루 평균 5~6건, 총 1천462건으로 급증했다. 공격 횟수만 많은 게 아니다. 한국의 청와대, 국회, 국방부 등 국가기관은 물론이다. 영화사를 해킹하고 지하철, 항공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킹하며 정보 탈취와



정복규  
논설위원

사회 교란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금융 사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북한의 사이버 금융 해킹 역량은 60점 만점에 50점으로 2위인 중국을 크게 앞질렀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금융제재가 강하게 들어왔다. 그런데 해킹을 하고 사이버 공격을 하다가 이게 돈벌이 수단이 된다는 걸 알게 됐다. 2022년 한 해 전 세계에서 해킹으로 도난당한 가상화폐는 38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6천억 원 정도다. 그중 40퍼센트가 넘는 2조원을 북한이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1년 수출해서 벌어들인 수익보다 훨씬 많다. 이 돈이 미사일과 핵개발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북한 사이버 공격의 무서움은 치밀하고 정교

한 사전 계획에 있다. 2016년 2월 4일 오후 8시 반, 은행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내부 망에 해커가 잠입했다. 해커는 이미 훔쳐낸 '스위프트' 국제거래 코드 정보를 미국 뉴욕연방은행에 맡긴 돈 8천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천억 원을 필리핀 마닐라 은행으로 이체했다. 이 돈은 다시 어느 카지노 계좌로 옮겨졌고 여기에서 돈세탁을 거쳐 어딘가로 사라졌다.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 금융 범죄는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 아래 실행됐다. 국제적인 금융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이다. 금요일부터 휴일이 시작되는 방글라데시 은행은 전날 밤늦게 이뤄진 인출 명령을 알지 못했다. 이후 미국 뉴욕 연방은행이 주말 휴무로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설 연휴중인 필리핀 마닐라에서 돈세탁을 하기 까지 해커는 최소한 5시간 동안의 움직임을 감춘 것이다. 북한은 2022년 3월에도 하루 활성 이용자가 200만 명이 넘는 인기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서 6억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를 훔쳐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킹은 서로 다른 가상화폐를 교환하는 일종의 환전 소인 '브릿지'라는 곳에서 발생했다. 돈을 찾으려면 브릿지의 수많은 검증 컴퓨터 중 절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업업체의 검증 컴퓨터는 9개에 불과했다. 북한은 이 약점을 노려 순식간에 다섯 개의 검증 컴퓨터를 해킹해 장악한 뒤 가상화폐를 훔쳐냈다. 전 세계의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을 초기부터 오랜 기간 관찰하면서 집요하게 취약점을 찾아내 공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은 베트남, 슬로바키아, 일본 등 가리지 않고 공격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김수키, 라자루스, 안다리얼 등 인민군 정찰총국 산하 조직들이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국가보위성도 가세하고 있다. 해외 다양한 IT업체들과 불법적인 공조도 확인된다.

사설

늘어나는 원인불명 사망

국내 한 해 사망자 수 30만 명 가운데 10%인 3만 명은 사망 원인을 모르는 '원인 불명'으로 처리되고 있다. 어느 농촌 마을에서 여든 살 할머니가 이불 안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됐다. 고령에다 지병도 있어, 의사는 사망 원인을 '단순병사'로 판단했고, 부검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례까지 치른 뒤, 타살 정황이 드러났다. 이웃 남성이 할머니를 살해한 범죄가 자칫 자연사로 몰릴 뻔했던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년에 1만 건씩 부검을 한다. 하지만 굳이 부검까지 하지 않아도 유족들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사인을 밝힐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시신에서 채취한 단 1ml의 혈액만 있어도 독극물에 중독됐는지 알 수 있다. CT도 찍을 수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골절과 내부 출혈을 확인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하다. 과학 검안으로 불리는 기술인 것이다. 현행법상 검사의 주체는 법의관이 아닌 검사이다. 시신에서 혈액을 채취하거나 사망자의 의료기록을 확인하려면 매번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 줘야 한다. 영장 없이는 법의관이 과학검안을 실시할 수 없다. 범죄 혐의점이 없는 대부분의 사망은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결국 사인을 논대중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과학검안이 활발히 이뤄지면 '원인 불명'으로 분류된 사망들의 사인이 상당수 밝혀질 것이다. 미국과 영국 같은 국가는 검시 절차 전반을 수사기관이 아닌 법의학 전문가들이 주도한다. 하지만 한국은 부검 이전 '과학검안'을 활성화하지는 법안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과학수의 법의학 인력과 장비 수준은 해외에서도 우수하다며 견학을 올 정도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도내 폐가전제품 배출 문제

전북 도내 공동주택에서 중 소형 폐가전 제품 배출이 한층 쉬워진다. 도내 지역의 공동주택 배출은 앞으로 소량의 폐가전 제품 배출 과정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를 비롯 E-순환거버넌스와 폐가전 제품 배출·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1~2개의 폐가전 제품을 배출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될 전망이다. 수거된 폐가전의 재활용으로 환경 오염도 더욱 줄일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와 병행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내 집 앞 맞춤 수거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다. 월 1회의 집중 수거일에 중·소형 가전제품을 수량과 관계없이 수거할 계획이다. 기존의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는 중·소형 가전제품을 5개 이상 동시 배출할 때만 수거했다. 그래서 소량의 가전제품을 배출하려는 도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배출하려는 개인이 신청해야만 했다. 특히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어려움이 컸다. 앞으로 맞춤수거 서비스는 수거를 원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지자체 또는 E-순환거버넌스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품목은 △정수기, 제습기(온도교환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디스플레이기기) △컴퓨터, 프린터, 이동전화 단말기 등(통신사무기기) △전선 레인지, 식기건조기,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등(일반전가전제품)이다. 폐가구나 약가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타 제품은 수거하지 않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폐가전 제품 맞춤 수거사업 주민 홍보 △배출 거점 관리 △단지별 정기 배출일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EPC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하는 젤렌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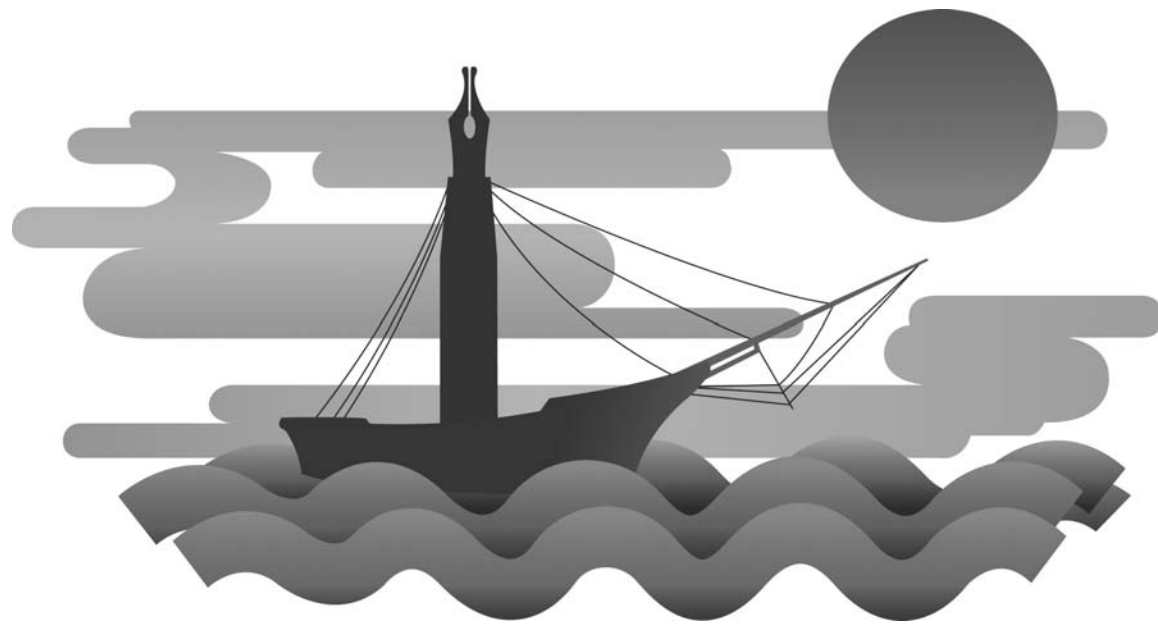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각) 몰도바 볼보이카의 카스텔 미디어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2차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의 참가국들로부터 전투기 지원 문제에 관해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압수 필로폰 공개하는 태국 경찰



지난 1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경찰이 차(茶)로 위장해 밀반입하려던 필로폰을 압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국은 동남아시아의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거대한 불법 마약 거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